

# 현실이 되어 가는 경북 과수농업의 몰락, 목숨 걸고 막아내자!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사무처장

이 일 권

## 경북 과수 농업의 현황

대구 경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과와 고장이다. 경북의 사과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경북의 미인은 사과를 많이 먹어서 사과처럼 아름답다.” 라는 말이 그리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사과는 경북의 주요 과실이다.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포도, 자두, 배 등의 과실류도 전국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재배면적의 비중이 높다.

## 한·칠레 FTA 협상이 경북농업에 미칠 영향

이처럼 경북농업에 있어서 과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국 과수 농업에서 경북이 차지

하는 비중이 이렇게 막대하다면 과수 농업이 크게 발달한 국가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경북농업의 앞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선 칠레와의 FTA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진정으로 국가 농업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선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칠레농업의 막대한 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칠레는 가히 농업분야 특히 과수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농업은 세계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생산과 수출

### ● 과수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2001년)

(단위 : %)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지역 (면적비중)	경북(64.0)	충남(18.0)	경북(50.0)	경북(42.9)	경북(75.4)
	충북(12.4)	전남(17.3)	충북(17.1)	충북(15.4)	충북(9.7)
	충남(8.5)	경북(17.1)	기타(33.0)	경기(13.0)	기타(14.9)
	기타(15.2)	경기(17.0)		기타(28.7)	
		기타(30.6)			

※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2001

## ● 칠레 과일류별 경쟁력 현황

구 분	경쟁력	생산량	자급률
과일류	세계1위	409만톤	199%
포도	세계1위	190만톤	188%
자두	세계2위	16만톤	150%
사과	세계3위	100만톤	550%
배	세계3위	33만톤	170%
복숭아	세계5위	27만톤	150%
체리	세계6위	31만톤	129%

에 있어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과수 작목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농업대국이다.

칠레의 과수농업은 한 마디로 생산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토지, 값싼 노동력을 가진 기업형 수출농업이다. 과수 산업 규모를 보면 과수 재배자가 1만 2천명, 재배면적이 21만5천ha, 수출업체수가 700여개 (다국적기업 대형 5개업체가 수출, 가공 주도), 수출국 75개국, 수출금액 13억불, 대형 저온저장시설 385개소(포장센터 당 평균 5~6개동), 포장센터 대형 100개소, 필드 단위 1,000개소 이상이며 대부분의 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유통·수출까지 대부분 계열화된 기업형태로 관리된다.

지대 및 기후대별로 가장 적절한 과종과 품종이 입지되어 생산시기와 용도별로 다양한 과실을 생산하며, 넓은 농경지, 큰 일교차, 적은 강우량 등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과수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칠레 과수 산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과를 살펴보면 현재 3만8천 ha의 면적에 9백9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출하시기는 11

월~1월을 제외한 거의 연중 출하가 가능하며,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만약 국내에 수입이 된다면 수입유통 가능가격은 1.404달러/kg(1,684)이며,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0.958달러/kg수준에 수입이 가능하고 이보다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포도는 사과와 함께 칠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 수출될 Red Globe 품종은 전체의 6% 내외지만 현재 유목비율이 높고 신규식재 수요가 많아 앞으로 생산량 급증이 예상된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안정적 저장기술개발 및 저장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어 국내 시설포도와 노지포도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품질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복숭아는 현재 1만 9천ha에서 26만 6천톤을 생산하며 그 중 일반 복숭아가 16만 2천톤, 천도복숭아가 10만 4천톤이 생산되며, 일반 복숭아는 11월말부터 3월중순까지, 천도복숭아는 11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수확한다. 품질면에서도 우수하며, 과실의 특성상 저장력이 낮은 것이 문제였으나 철저한 저장기술의 운영으로 장거리 수출의 단점을 극복하여 우리 과수산업에 더욱 위기감을



◀전국농민연대(준)는 향후 농정현안에 대해 농민단체간 연대의 틀을 더욱 굳건히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지난달 7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 촉구집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복숭아 가공용 통조림을 연간 30만톤씩 생산,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무관세 가공식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왔을 때 여타 국내 사과일(참외, 수박, 토마토, 복숭아 등)시장은 순식간에 잠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칠레농업 현황 실태조사 자료' 참조)

이외에도 자두, 배 및 기타 과수작물의 품질의 우수성과 유통 및 수출 시스템의 우수성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와의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체결이 될 경우 칠레산 과실의 수입은 칠레 정부와 협상결과 마련된 몇가지 양허안이 발효가 되더라도 국내 과실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양허안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과 농업관련 연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감을 조성

케 한다. 칠레산 과실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점차적으로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 그 여파는 거의 전체 과수 농가를 도산시킬 수준인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내농업 직접피해액은 관세 철폐시 시설포도는 10년간 2,000억원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년간 복숭아가 1,181억원, 자두가 521억원, 감귤이 3,753억원 등이다.

우리 경북의 주 생산 과실인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함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점을 들어 정부는 마치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사과와 배는 국내산의 경우 칠레산 보다 가격 면에서 몇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작목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과수농업의 연쇄도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초기부터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농정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예상되어 간접 피해액까지 합산을 한다면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야말로 경북의 과수산업은 불과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농산물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이 금액은 아무리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등을 칠레에 팔더라도 결코 이익이 되는 장사가 아님을 금세 알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FTA협정의 첫 상대로 자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싱가포르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FTA에서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입장이다. FTA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구조개혁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FTA를 교섭하는 경우에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교섭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일본 농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가

FTA에 임하는 기본 자세인 것이다. 우리와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한·칠레 FTA농업협상에 대한 대처방안

농림부는 한·칠레 FTA타결이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다. 「FTA이행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피해지원기준 및 절차 등의 명확화를 통해 경쟁력없는 농업인에게 폐원보상 또는 작목전환을 지원 하고, 경쟁 가능 농가는 시설현대화·규모화·품질향상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며, 「FTA이행특별법」은 FTA국회비준 동의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설치 등에 대하여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는 정부의 사탕발림식의 말장난을 믿을 수 없다.

정부는 경상북도 농민들에게 2003년내에 FTA 체결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300억원 이상의 중점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포도 재배시설(비가림) 및 과일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 등 과수분야에 대한 지원, 마늘경쟁력제고 등 채소특작분야에 대한 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유통시설보완 등에 대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칠레 FTA협상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농민들 눈속임식의 대책보다는 지금이라도 한·칠레 FTA협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FTA 협상에서는 식량안보 확보의 차원에서 농업을 고려하며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농연